

탈북민·한인2세·미 의원 “북한인권 개선” 한 목소리

D.C. 국회의사당 앞 팸리 진행
 KCC, 북한자유주간 협력
 10개주 한인 학생, 탈북자 참여

21차 북한자유주간 4일차인 10일 오전 11시30분 미국 워싱턴 D.C. 연방 국회의사당 앞에서 미국 10개주에서 모인 한인 학생들과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위해 참석한 탈북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집회는 북한 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KCC)의 ‘청소년 미션&인턴십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현장에 여러 현직 의원들이 참석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비인도적인 강제복속에 반대했다.

영 김 하원의원은 이날 연설을 통해 한인학생들의 참여를 격려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한 목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되기를 바랐다. 영 김 의원은 전날 레이번 의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탈북민들과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의회가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인권의 실상을 밝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며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셸 스틸 하원의원은 “우리의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이 행사의 취지에 적극 찬



10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국회의사당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 및 탈북자 강제복송 반대를 위한 팸리가 진행됐다. ©기독일보

성하는 한편,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셸 스틸 하원의원은 자신의 부모가 공산주의를 피해 한국으로 피난했던 배경을 소개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계가 아닌 조너선 잭슨 하원 의원과 버디 카터 하원의원도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조너선 잭슨 의원은 “자국민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국가들은 모두 자유를 향한 열망에 결국 무너졌다”면서 “자국민에 대한 인권 탄압은 결국 북한 당국에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디 카터 하원의원은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길은 인권 탄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차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북한자유연합 대표로서 강단에 오른 수잔 솔티 여사는 북한 내부로의 정보유입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히면서 자유북한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출 것을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미 의회에서 증언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16명의 탈북민들도 함께 했다. 북한자유주간은 통상 4월에 진행돼 왔지만 올해는 KCC의 ‘청소년 미션&인턴십 컨퍼런스’ 일정에 맞춰 7월에 진행되고 있다.

KCC는 연방 국회의사당 팸리 외에도 8일부터 11일까지 워크샵, 멘토링 프로그램, 백악관 앞 기도회 및 행진, 의회 사무실 방문 등을 진행했다. 김대원 기자

“북한 내부서 민주화와 자유 위한 자체 조직 활동 중”

21차 북한자유주간 4일차인 10일 오후 1시30분 디펜스포럼재단(의장 윌리엄 미텐도르프 2세)은 레이번 의회 사무실에서 국회포럼을 열고 16명의 탈북민이 전하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표에는 총 9명의 NGO 지도자와 7명의 특별 증인이 나섰다. 기존에 발표되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담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주목되는 점은 대북방송과 배라 등의 북한정보 유입으로 인해 많은 탈북민들은 이미 북한에 있을 때부터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국제 정세를 깊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군사분계선 가까이 교동도에 살았던 박신혁 씨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대북방송과 배라 및 각종 통

로를 통해 유입되는 방송들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을 길러왔다고 밝혔다. 현재 자유북한방송 기자로 활동 중인 배광민 씨는 어린 시절 북한 당국의 핍박으로 인해 아버지가 평양에서 양강도 오지로 이동해야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삶이 너무도 힘들 때 탈북을 마음에 품게 됐고, 그것은 외부로부터

반입된 각종 정보들로 인해 북한의 실태와 한국의 경제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배광민 씨는 험난했던 탈북의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탈북이 실패할 경우 2살 어린 딸이 반역자의 딸로 평생 고통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갈 것을 알기에 유사시 어린 딸을 직접 죽일 각오로 칼을 품고 국경을 건넌던 절박한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며 연신 눈물을 쏟았다.

장세울 씨는 현재 북한 내부에 정보를 유입할 뿐만 아니라 현지의 정보들도 수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미 북한 내부부터 민주화와 자유를 위한 조직이 스스로 만들어져 활동 중임을 알렸다. 또 장세울 씨는 북한에 정보 유입을 하는 활동을 하면서 형제 3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고, 함께 협력하던 15명의 친구들이 목숨을 잃은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김대원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내막
 ◎사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PTSA.EDU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24년 가을학기 신·편입생모집
 개강일: 2024년 8월26일

Cal Grant와 Pell Grant 학자금 지원
 현역 및 재향군인 학자금 및 재정지원
 각종 장학금과 학자금 혜택

입학설명회 참석시 입학금 \$100 면제
온라인 입학설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Zoom ID: 626 756 1800
 ★ 날짜와 시간은 미서부 기준

학사과정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ABHE
 2024년 7월 26일 (금) 오후 4시
 2024년 8월 9일 (금) 오전 10시

박사과정
 목회학 ABHE
 2024년 8월 12일 (월) 오후 4시
 선교학, 선교학철학 ABHE
 2024년 8월 8일 (목) 오후 3시

석사과정
 목회학, 목회학 원목집중과정, 목회학 코칭집중과정 ABHE & ATS
 2024년 8월 2일 (금) 오전 10시
 2024년 8월 9일 (금) 오후 4시
 선교학, 중국어 선교학 ABHE & ATS
 2024년 8월 2일 (금) 오전 10시
 2024년 8월 9일 (금) 오후 4시
 상담심리학 ABHE & ATS
 2024년 7월 26일 (금) 오전 10시
 2024년 8월 16일 (금) 오후 4시
 전문코칭학 ABHE
 2024년 7월 26일 (금) 오전 10시
 2024년 8월 16일 (금) 오후 4시
 English M.Div., ABHE & ATS
 2024년 8월 12일 (월) 오후 2시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Ptsa.edu)를 참고해주세요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n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562 926 1023 (EXT 300)

유학생 1-20발행!

영김 의원 “의회가 탈북자 목소리에 귀기울도록 할 것”

북한자유주간 맞아 미 의회에서 ‘탈북민들과의 라운드테이블’

제21차 북한자유주간이 워싱턴 DC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10시 30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주관으로 ‘탈북민들과의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개최됐다.

소위원장인 영 김 연방하원의원은 이날 탈북자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회가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들이 증언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영 김 의원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받았던 고통과 탈북하는 과정, 또 그 이후의 정착까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였는지 상상하기 힘들지만, 항상 같은 고통을 나누면서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회에서 증언한 탈북자들은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하는 것만큼 북한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9일 미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탈북자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영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우측 4번째)과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위해 참가한 탈북자들 및 수잔 솔티 자유북한연합 대표(우측 3번째)가 기념촬영을 했다. ©기독교일보

일가족 9명을 목선에 태우고 탈북에 성공한 김이혁 씨,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영 씨는 자신들을 깨우친 것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정보였다고 강조했다. 김이혁 씨는 “지금도 북한에서 세뇌교육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진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유입이 이뤄져야 한다”

고 밝혔다. 김지영 씨는 자신이 김일성종합대학교에 재학하던 시절에 이미 한류드라마 애청자 집단이 학교 안에 생길 정도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았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북한 엘리트 집안에서 자라 김일성에 충성하겠다는 다짐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바꾼 것은 외부로부

터의 정보 유입이었음을 증언했다. 또 김지영 씨는 이날 증언 중에 북한 인민들의 어려운 삶은 안중에도 없고 한국의 부자들의 삶을 따라하기 원했던 북한 엘리트 계층안의 이기심과 허영심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일성종합대 학생들은 충성분자들만 있는 줄 알았지만 한류에 열광하고 인민의 실질적인 삶

에는 관심없는 그들의 모습이 저의 생각을 바꾸게 한 계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김지영 씨는 “이미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고 있다. 종종 친척 중에 저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의 요청하는 돈의 액수가 어마어마 하다”고 말했다. 강제복송이라는 만악의 사태를 대비해 독약을 준비하고 목숨을 걸고 탈북한 과정을 나눈 김지영 씨는 “강제복송은 단순히 벌금을 내고 벌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잡혀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를 정도로 끔찍한 일”이라고 밝혔다.

여러 루트를 통해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활동을 해왔던 장세울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도 이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정보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세울 대표는 “현재도 북한의 많은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뜻을 모았고 북한에서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172차 D.C 통일 광장 기도회

워싱턴 DC에서는 매주 빠지지 않고 통일광장 기도회가 링컨 기념센터와 한국전 참전용사 공원 사이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서 억압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루 빨리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한반도가 북측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모임이 벌써 170차를 훌쩍 넘어가고 있다.

9일 오전 11시에 진행된 172차 워싱턴 D.C 통일 광장 기도회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참석했다.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복송의 진상증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21차 북한자유주간 일정을 위해 한국에서부터 참석한 탈북민 3명이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NK지식인 연대 김흥광 대표가 사회를 맡고, 탈북민 이병림 씨, 지한나 씨, 이숙정 씨가 간증했다.

이병림 씨는 탈북 과정에서 아들이 강제복송된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아들이 복송된 것을 알고 나서 드는 생각은 내가 과연 살아야 하는가였다. 정치범 수용소는 죽음과 같은 곳으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근방에서 미 의회 증언을 마치고 곧바로 참석한 북한자유주간참가자들은 이날 통일광장 기도회 참가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했다. 김대원 기자



172차 워싱턴 D.C 통일 광장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이 북한자유주간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있다. ©기독교일보

“북한 주민들 위한 콘텐츠 개발해야”

→1면 기사 <북한 내부서 민주화 와...>에 이어서

17년 전 탈북한 김흥광 씨는 47년 동안 북한에서 지내면서 느껴보지 못한 희망과 풍요를 대한민국에서 자유 가운데서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음에 밝혔다.

하지만 탈북 실태를 설명하면서 “탈북을 시도하는 100명 중 10명 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나머지 90명은 중국 공안에 체포 및 강제복송되거나 두만강과 압록강 등 국경에서 총살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런 참상이 마냥 저를 행복하게만 할 수 없었다. 사슴은 좋은 풀을 찾으면 특별한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릴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단들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레이번 의회 사무실에서 국회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일보

대북전단지를 북한으로 꾸준히 보내고 있는 박상학 씨는 “우리는 달려 돈과 쌀, 그리고 진실을 담아서 북한으로 보내지만 북한은 거기에 대해 오물을 보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이날 탈북민들은 21년간 북한자유주간을 이끌어 온 수잔 솔티 여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사령관은 “한국은 탈북자들이 목소리를 내면 좌우가 갈라져 싸

우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에 오면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분들이 우리를 위해 눈물 흘려주고 귀를 기울여 주는 것에 감동을 받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흥광 씨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북한자유주간을 만들고, 또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와 미 의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준 수잔 솔티 여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재단이사장 **한기홍 박사**
총장 **최규남 박사**

2024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원서접수 일정

- 원서 접수 마감 : 7월 31일까지
- 개강 : 8월 26일

입학설명회 <설명회 참석자 입학금 면제>

1차 : 2024.6.17(월) 5:00pm (미국 서부시간)
2차 : 2024.7.15(월) 5:00pm (미국 서부시간)
ZOOM ID : 954 257 1647 PW : 2020

입학 절차

1. 원서접수

www.gm.edu에서 Apply메뉴 클릭

2.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필요서류 제출

3. 인터뷰

온라인 인터뷰 진행

교육인가기관






입학 특전



유학생 I-20 발행



선교사 및 목회자 장학금, Early Bird 장학금



연방정부 장학금 및 학비용자 (FSA)



통신(Online)수업으로 학위 취득 가능



eBook Library Service 제공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되는 곳!

실린다

나의 미래



학사
Bachelor Of Arts

- 신학 (BATH)
- 기독교상담학 (BACC)

석사
Master

- 목회학 (M.Div.)
- 기독교 교육학 (MACE)
- 선교학 (MAICS)
- 기독교 상담학 (MACC)

박사
Doctor

- 선교학 (DMiss)
- 교차문화학철학 (PhD ICS)
- 교육학철학 (PhD ES)
- 상담심리학철학 (PhD CS)

[Apply 바로가기] [입학설명회 ZOOM]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www.gm.edu

admissions@gm.edu

(714) 525-0088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선교사들이 요청하면 한국교회는 순종해야”



2024년 KWMC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7월 8일(월) 오후 3시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에서 개막했다. ©기독일보

제 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올해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예수, 구원의 그 이름!”(Jesus No Other Name!(행 4:12) 주제로, 500여명의 전세계 선교사 가족과 약 2000여명의 남가주 성도들이 참여해 열렸다.

8일 저녁집회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는 하나님께

서 기뻐하시는 선교사들이 있어서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가 붙들림바 되어 가지 않나 생각된다 고 하면서 선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줄 것을 도전했다.

그는 “저는 한국에서 왔지만 디아스포라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예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는 심장이 멈췄다고 하셨다. 이를 놓고 다시 기도하는

데 한국교회가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북한이고, 다른 하나는 디아스포라라는 감동을 받았다”면서 “교회를 지키고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너무 중요하다. 저는 선교사들이 명령하면 한국 교회를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서, 그리

고 하나님이 부흥을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어서 모이게 된 것”이라면서 “코로나 기간에 많은 한국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지금 기도 모임이 형성되고 네트워크가 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무브먼트가 진행되고 있다. 성도들 안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다. 새 포도주는 새부대에 채워지리라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을 주셨는데 북한에 앞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질 줄 믿는다.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막힌 담을 열고 새로운 길을 열수 있다”면서 “이 분단의 나라 조국에 수많은 기도가 쌓이고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적 통일을 이루실 줄 믿는다”고 했다.

황 목사는 “예수님이 언젠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 목사, 집사, 권사 등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의 삶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성령께서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전라야 나 오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마지막 시대에 선교를

이어가는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디아스포라의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 작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간증을 한 튀르키예 서헬렌 선교사는 튀르키예에 지진이 난 후 구호활동을 했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한달에 한번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작은 헌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처음에는 학부모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아이들도 경계를 했지만, 우리가 끊임없는 사랑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면서 “그들에게 계속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사랑의 진짜 주인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지의 이들에게 나눌수 있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열매를 볼 수가 없다”면서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던지 선교지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1988년 처음 시작된 이래 늘 시카고 휘튼대학교에서 개최됐으나 남가주에서는 지난 2016년 아주사피 시픽대학교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게 됐다. 통상 4년마다 개최해 오던 대회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난해 6년만에 열렸고, 앞으로 2년마다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열리게 된다. 토마스 맹 기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7월 조찬기도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6일(토) 갈보리 선교교회에서 7월 월례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강사로는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 참석 차 OC에 온 박택수 선교사를 초청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22년째 대화식 직접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박 선교사는 말레이시아의 환경과 열악한 상황에 대해 소개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는 성도들에게 꼭 묻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쫓겨날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결혼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라고 묻고 믿음을 확인한다고 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많은 종교지도자나 기독교인들이 행방불명으로 사라진다고 하며, “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형제에게 모두가 잠든 밤에 바닷가에서 세례를 준 일은 감격적이었다”고 간증했다.

이번 기도회는 OC목사회 이원석 목사의 경배와 찬양에 이어 신영세 장로(부이사장)의

대표기도 후 박택수 선교사가 베드로전서 2:9-10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사명”이라는 제목의 설교와 간증, 사역소개로 이어졌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한국과 미국을 위한 기도, OC 지역사회와 지역교회, 해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엄재선 장로(연합회 이사)가 마무리 기도했다.

2부 순서에는 7, 8월 및 하반기에 있을 OC교계 주요 행사를 윤우경 증경회장이 소개했다.

7월 22일부터 시작하는 제3차 영적대각성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여를 당부했고, 남가주교협과 OC교협, OC전도회연합회가 공동주관으로 8월 11일(주일) 오후 5시에 광복절기념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알렸다. 제5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위해 (10/14 월, Los Coyote Country Club)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선 기자



OC연합회가 7월 조찬기도회를 드렸다. ©OC연합회



리모델링 전문

ADU 전문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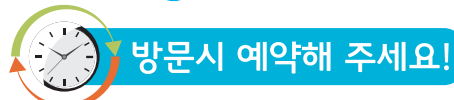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K-Urban Builders Inc. Lic#854389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사람이 모이는 소그룹 리더는 이렇게 질문한다

7월 8일(월) 세계선교교회서
로이스 조 선교사와 씨니 김 목사 강의

소그룹 리더 세미나가 본지 주
최로 7월 8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세계선교교회(김
창섭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 및 사모, 평신도 소그룹 리더
들이 함께한 가운데 로이스 조(소
그룹&리더십아카데미 원장)이 <
건강한 교회와 소그룹>, <건강한
소그룹의 목회적 적용>을, 씨니 김
목사(LA씨티교회 담임)가 <소그
룹의 소통>을 강의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로이스 조 선
교사는 소그룹 모임이 지닌 힘, 의
미에 대해 설명했다.

소그룹, 뜻을 제거하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해

“인부들이 올림픽 스타디움을
짓다가 못에 박혀 벽에서 움푹달
씩 못 하는 도마뱀을 발견했다. 밤
이 되니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
을 것을 가져다주는 것을 보았다.
주일에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좋
은 가방 들고 너무도 말끔하게 오
지만 여러분 소그룹에 오는 이들
은 가슴에 한두 개의 못을 박고 있
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픈 과거일
수 있고, 믿지 않는 배우자, 폭력
적인 배우자일 수 있다. 청년들에
게 물어보면은, 서로 사랑하지 않
는 부모님, 또 불확실한 미래, 이
런 것들이 힘겹게 하고 아프게 하
는 것들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
에게는 경제적인 것일 수 있다, 이
런 것이 소그룹 구성원을 꺾을 수
있는 요인들이다. 소그룹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못을 빼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기쁨, 웃음, 힘을 줄
수 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와 함께 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다면 그
래도 그 사람은 살아갈 소망이 있
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날 하루는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 소그룹에
서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
미이다.”

이어서 그는 소그룹에서 소그룹
원들의 내면의 문제들과 삶의 정

황에 대해 살피지 않은 채 자신의
방식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일 수 있음을 지
적했다.

“의사와 음악하시는 분이 헌신
된 마음으로 소그룹을 섬기고 계
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
아서 저를 찾아 오셨다. 제가 그
소그룹원들을 만나보았다. 그러자
소그룹원들은 그린다. ‘리더 부부
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안다. 그런
데 내가 사는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깐 그 집에 가서 너무 잘 차려
진 음식, 깨끗한 집, 공부 잘하는
자녀들, 그집에 가면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자괴감이 들어서
가기가 싫다는 것.’ 제가 그때 깨달
았다. 우리가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
을 전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지식
이 필요하다. 그 사람에게 어떤 상
처가 있는지 어떤 삶의 정황에 있
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그룹에서 친밀함에 관해, 자신
의 쓴 뿌리를 드러냄으로, 그 아픔
에 공유한 소그룹원이 마음을 열
고 자신의 아픔을 나누고, 그 아픔
을 다른 소그룹원들이 온전히 수
용하고 위로한 경험을 나눴다.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

“리더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다. 성도들이 자기 삶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리더는 질문을 던진
다. 말씀을 묵상하다 스스로 발견
한 진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이 소그룹의 몫이다.”

강의에 따르면,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은 도입질문, 관찰질문,
해석질문, 적용질문의 단계로 구
성되는데, 도입질문의 단계에서는
어색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유쾌하고 기분을 풀 수 있는 질문
을 하는 것이 좋다.

이때는 성경을 몰라도 답할 수
있으면서도, 본문과 연관된 질문
을 던지되, 상처가 될 수 있는 질
문, 외모(예: 삭개오가 본문인 경
우, 키가 작은 사람에게 키가 작아



본지가 주최한 소그룹 리더 세미나가 7월 8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
지 세계선교교회(김창섭 목사)에서 열렸다. 로이스 조(소그룹&리더십아카데미
원장)이 <건강한 교회와 소그룹>, <건강한 소그룹의 목회적 적용>을, 씨니 김
목사(LA씨티교회 담임)가 <소그룹의 소통>을 강의했다.

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질문은 피한다.

관찰 질문은 육하원칙을 기본으
로 언제, 누가 등장하는가, 일어난
일 순서대로 정리하기, 반복되는
단어 구절 찾기 등이다.

그는 적용질문의 예로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를 제시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은 맞
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본문
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
신가’이다.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
야 한다. 어떤 삶의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며, 질
문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1.순번을 정하거나 지적해서 답하
게 하지 않는다. 질문하고 답할 때
까지 기다린다. 리더인 내가 먼저
대답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
다. 2.정답 발표가 아니라 발견하
고 나누는 시간이다. 3. 결론을 강
요하지 않는다. 엉뚱한 대답, 틀린
대답을 하더라도 정정하지 않는다.
잘못된 답변이라 하더라도 배려하
고 넘어가는 게 낫다. 6. 침묵하며
기다려 준다. 질문은, 침묵의 시간
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소그룹 사례와 적용

두 번째 강의에서는 각 참여자
들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소그룹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이
슈들과 그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발표했다.

실제 소그룹 상황에서 벌어진,
비밀 유지와 성도 보호 사이의 갈
등 사례, 부리더가 리더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갈등을 빚은 사례, 교
회 밖 선교단체에서 소그룹을 인
도하는 성도가 교회에서 소그룹
을 인도하는 다른 성도에게 충고
를 전했는데, 그 충고로 인해 마음
이 상한 사례 등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로이스 조 선
교사는 각 발표 내용들을 바탕으
로 소그룹의 주요 원칙들을 정리
했다.

씨니 김 목사는 소통의 4 단계
를 설명하며 “리더는 말을 아껴야
한다.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
끼셨나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
늘 나는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어
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
시나요?’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LA씨티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 때 활용했던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법)’를 소개했다.

“5~6명 정도 그룹을 이루어 1시
간 반~1시간 45분 정도 말씀을 나
누고 리더들이 간단한 기도제목을
목회자에게 나눈다. 소그룹 리더
는 성경을 읽을 사람을 먼저 선정
한다. 소그룹 시간에 한 사람이 성
경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면 다른
소그룹원들은 눈을 감고 듣는다.”

질의 및 응답시간 ‘리더를 뽑는
기준’에 관한 질문에, 로이스 조 선
교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 맞는 리더
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우
리들이 리더십을 갖게 된 처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저 같은 경
우, 제가 맨 처음 소그룹의 리더로
권면을 받을 때만 해봐도 정말 얼
터러였다. 새로운 리더를 세울 때
는 함께 같이 시행착오를 겪으면
서 다시 부둥켜 안고 세우는 마음
의 포용력, 인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언했다.

‘소그룹 구성’에 관한 질문에, “가
장 이상적인 모습은 다양한 사람들
이 모여서 서로 다름을 통해서 깎
여지고 성숙되는 것이지만 처음 시
작은 그렇게 되기 어렵다. 제가 조
언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동질
성, 공통성이 있는 사람들로 모으
는 게 좋다”고 조언했고, 부부 소그
룹 모임에 관해서는 같은 시간, 같
은 공간에서 진행되되 나눔의 시간
에는 남/녀 구분해서 모임을 갖는
것이 더 깊은 나눔을 위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소그룹원 사이 갈등’에 대해, 두
사람의 갈등이 있을 때 너무 오랫동안
끌고가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
이 아니라며 “우리가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리더가 어떤 사
람이냐에 따라 소그룹의 성격은 달
라진다. 성령님은 프로그램을 통해
서 일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
하기 때문이다. 리더가 좋고 나쁘
고, 잘하고를 떠나서, 각 사람에게
는 자기 성향과 특성에 맞는 그룹이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성향과 성품에 맞는 그룹에 보
내줄 수 있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
겠다”라고 조언했다. 주디 한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믿을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애니문 보험과 함께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촬영한 애니문 서울 메디칼 그룹의 의료진입니다.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 떠나는 여행

#1일 무료 관광

이번에는 +, 짝꿍과 함께 떠나는 무료 여행!

참여 대상

센터메디컬그룹 회원 이라면 OK!
센터메디컬그룹 회원의 짝꿍이라면 OK!
(65세 이상 시니어 ONLY!)

오렌지카운티 탄생지로~

OC 출발

출발장소

센터메디컬 클리닉
가든그로브점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관광장소

미션 산 후안 카피스트라노

7월 30일 (화) 9am



캘리포니아의 유럽으로~

LA 출발

출발장소

삼호관광
258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관광장소

게티 빌라

7월 31일 (수) 9am



총 2회 중 1회만 참여 가능합니다. *점심이 무료 제공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ID카드 지참하여 8:00am까지 출발장으로 와주세요.

신청문의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
(888) 847 - 3098



“확대된 선교 개념, 지나친 선교 범위 확대로 본질 흐려져”

지구촌선교연구원·중동성서신학원 2024 선교 포럼

지구촌선교연구원(원장 안승오 교수)·중동성서신학원(원장 김병호 목사)이 9일 오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넓어진 선교개념 평가와 선교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4 선교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1부 인사 및 기도, 2부 선교 포럼, 3부 「선교와 교회」 출판 감사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인사 및 기도는 김상식 목사(산동교회 담임, 본회이사)의 사회로, 장승천 이사장(반석교회 담임)의 환영사, 김홍천 명예이사장(노암교회 원로)의 개회기도, 김은호 목사(지구촌선교연구원 이사)의 광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인사 말을 전한 장승천 이사장은 “선교의 목표는 우리가 바꿀 수 없다. 선교의 방법은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여러 가지를 해 볼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전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그리고 복음을 수호하고 잘 전파하는 것에 에큐메니컬이 있다. 그러나 주어는 두 가지를 가질 수 없다. 복음선교를 위해 협력하여 함께 잘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2부 선교 포럼은 △김승호 교수(한국성서대)가 ‘넓어진 선교개념 출현에 대한 고찰’ △김승학 교수(안동교회 담임)가 ‘목회현장에서 본 선교와 봉사의 관계’ △안승오 교수(영남신대 선교신학)가 ‘예수의 가르침에서 본 확대된 선교개념 평가’ △배춘섭 교수(총신대 선교신학)가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총체주의에 관한 신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복음의 선포 소홀히 하는 섬김, 경계해야

김승호 교수는 “신약성경을 통해 바울 선교의 목표를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첫째는 복음의 선포를 통한 영혼 구원이며, 둘째는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셋째는 제자화이며, 넷째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며, 다섯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다.

이어 “20세기 개신교 내부에서 일어난 주요한 두 가지의 대표적 선교 운동은 복음주의운동과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며 “신학 또한 복음주의 신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로잔 선교 신학과 세계교회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의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이 두 축을 이루며 세계선교를 주도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에큐메니

컬 선교가 해온 것처럼 복음 선포를 통한 세상 복음화보다 좋은 세상 만들기(정치, 사회, 인종, 환경, 빈곤, 차별철폐, 화해, 평화증진)에 초점을 둔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방주가 아니라 사회개혁을 하는 NGO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은 그 존재 자체로 선교 변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엄청난 선교적 사명이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회복시켜 나갈 사명이 있다”고 했다.

또한 “로잔운동은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가 태동할 때 연합하여 복음화를 이루고자 했지만, 그 목표가 시간이 흐르면서 인본주의로 흘러간 실수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도와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다”며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복음 선포의 중요한 요소며 섬김 없는 선포 역시 설득력이 없고 복음을 약화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의 선포를 소홀히 하는 섬김은 더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대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인간은 비인간화시키는 진정한 원인은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에 있기보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 있다는 사실”이라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비인간화가 되었는데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으며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간에게 있어 최악의 단절, 분리, 격리, 고립은 인간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분리이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 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서는 참된 인간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 복음 없는 살림은 가장된 살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살림은 위선적 살림

이어 두 번째로 발제한 김승학 목사는 “고전적인 선교 개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를 유일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하는 회심을 목표로 한다”며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의 문을 연 학자 호켄다이크는 하나님의 선교개념을 해석하면서 이 땅 위에 살림을 가져오는 것을 선교로 이해한다. 그는 선교의 목적을 평화와 공존의 살림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왼쪽부터) 김병호 목사, 김승호 교수, 김승학 목사, 안승오 교수, 배춘섭 교수 ©기독교일보

라 주장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복음이 없는 살림은 가장된 살림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살림은 위선적 살림”이라며 “설령 세상의 살림이 깨진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요 유한”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교는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 사실을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사실을 부인해선 안 된다”며 “이천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완전한 교회, 그리스도인은 존재한 적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능력 있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해 오셨다. 복음을 즐기롭게, 그러나 담대히 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 세상 행복하게 하는 모든 활동, 다 선교에 포함하는 넓어진 선교 개념 ‘확대된 선교 개념’

안승오 교수는 “전통적 선교 개념은 상당히 단순하고 명료한 경향이 있었다. 즉,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는 기본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활동이었다”며 “1952년에 태동한 Missio Dei 개념 이후로 선교는 세상에 살림을 이루는 모든 활동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즉 선교 개념 속에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이롭게 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선교 개념을 ‘확대된 선교 개념’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며 “즉 확대된 선교 개념이란 전통적인 의미의 단순 명료한 선교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활동을 다 선교에 포함하는 넓어진 선교 개념”이라고 했다.

안 교수는 “확대된 선교 개념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일을

다 선교로 포함하려는 경향 속에서 선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선교의 본질과 핵심이 흐릿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또, 확대된 선교 개념의 주요 배경이 된 하나님의 선교 개념, 하나님 나라 이해, 새로운 구원 개념 등을 예수의 말씀에 비추어 분석해 본 결과 이 개념들을 예수의 가르침과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거나 왜곡된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확대된 선교 개념은 선교에서 수행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과 그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 해야 할 부수적인 사역을 다 포함하여 본질로 생각함으로써 말미암아 정작 강조되어야 할 본질이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며 “물론 이러한 관점은 지나치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의 해석으로 보일 수 있다. 선교의 개념을 생각할 때 세계의 변화에 따른 폭넓은 선교 방식에 대한 열린 자세와 선교하는 자의 높은 윤리성 등에 대한 깊은 고뇌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선교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 2천 년 역사를 볼 때 예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진 경우는 대부분 인간의 합리성과 현실성 등을 말씀보다 앞세운 상황에서 발생하며, 이런 경우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서고 선교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런 경우 매우 매력적이고 설득력은 있어 보이지만 본질과 핵심을 상실함으로써 말미암아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거의 없는 빈 수레와 같은 교회로 전락할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점에서 지금의 확대된 선교 개념이 과연 예수의 가르침과 맞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하

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했다.

◇ 교회는 총체주의보다 우선주의라는 복음전도 위한 선교적 사명 감당해야

마지막 네 번째로 발제한 배춘섭 교수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총체주의를 비평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케리그마적 관점에서 교회의 선교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 작정에 따라 택한 백성인 교회를 통해 사역을 펼쳐나가신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작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케리그마를 온 세상에 알릴 선교적 목적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선교의 구원론적 관점이다. 교회 선교는 파괴된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며 “교회의 본질적 사역은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있다. 이런 점에서 총체적 사역들은 교회의 복음 전도보다 우위일 수 없고, 동등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한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 관점”이라며 “복음전도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부터 현재까지 교회가 한결같이 지향해 온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교회는 불가시적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인 이 세상과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

끝으로 배 교수는 “교회는 총체주의보다 우선주의라는 신학적 입장에서 복음전도를 위한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과 계획은 죄와 세상 가운데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 선교의 목적은 복음 전도이기에 이를 위해 교회는 총체적 선교사역들을 마땅히 감당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질의응답 순서가 진행됐다. 이후 3부 출판 감사 순서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출판 감사 순서에서는 안승오 교수가 경과 보고를 하고, 김순미 장로(전 총회 부총회장, 지구촌선교연구원 고문)가 축사를 전했다.

한편, 지구촌선교연구원은 지구촌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 연구와 훈련을 위하여 2013년 1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바른 선교를 위한 다양한 선교 △선교 전문 저널 「선교와 교회」 발행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해외 선교사 지원(미얀마, 볼리비아, 마다가스카르, 일본) 등을 실시하여 세계선교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다. **장요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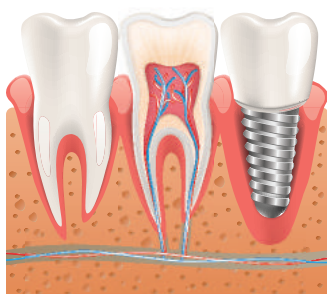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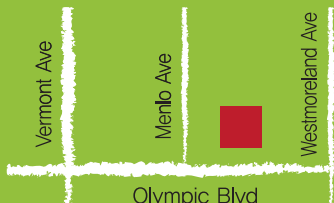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BewhY Concert in LA with Loving Worship



Tickets —
axs.com

7PM — Saturday
Aug 17 2024

Ticket 문의 —
213-357-1565
\$120 | \$100 | \$80

The Novo Theater
800W Olympic Blvd
Los Angeles 90015

협력 기관:

기독일보
미주 중앙일보
미주 CBS방송

CGN TV
미주 CTS TV
YTV AMERICA

협력 교회:

LA 온누리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영락교회
충현선교교회
베델교회

ANC 온누리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새생명비전교회

“장로교회, 말씀 따르고 거룩하게 되어 주님 섬기자”

한장총, 9일 남서울교회서 제16회 한국 장로교의 날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천 환 목사, 이하 한장총)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서울교회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회’(롬 12:11)라는 주제로 ‘제16회 한국 장로교의 날’을 개최했다.

한국 장로교회들의 연합체인 한장총이 연중 최대 행사로 치르는 ‘한국 장로교의 날’은 한국 장로교의 역사성과 전통을 다시 확인하고, 회원교단 및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 친교 등을 위해 열리는 집회다.

◆ “한국 장로교회,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자매”

대회장인 천 환 한장총 대표회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2009년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여 칼빈의 생일인 7월 10일을 장로교회의 날로 선포하고 한국의 장로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한, 한국 장로교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모임이 올해 16회를 맞이했다”고 했다. 천 대표회장은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와 자매다. 한국 장로교회의 하나 됨을 위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경건과 균형잡힌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한국교회는 세속화와 탈종교화의 심각한 도전과 교세 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복음의 진정성과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으로 교회의 거룩성과 공교회성을 강화해 나가자”고 전했다. 이어 “교회는 위기를 맞을 때



제16회 한국 장로교의 날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개와 개혁의 힘을 발휘했다. 실추된 교회의 권위와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인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공의를 실현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자”고 했다. 준비위원장인 김홍석 목사(예장 고신 총회장)는 환영사에서 “장로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장로교회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굳건히 하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음세대를 세우는 영적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이날 행사는 기념예배와 성찬

식, 부흥 기도회 및 한국 장로교의 날 기념식 순서로 진행됐다. 권순웅 목사(한장총 상임회장)가 인도한 기념예배에선 변세권 목사(예장 합신 총회장)가 기도했고, 김정우 목사(예장 합동동신 총회장)의 성경봉독과 남서울교회 찬양대의 찬양 후 예장 통합 증경총회장이자 연동교회 원로인 이성희 목사가 설교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교회’(여호수아 3: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 목사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한국교회는 성경적 교회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한국교회가 말씀을 앞서지 말고 성경 본질로 돌

아가 성경적 개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목사는 또 “거룩한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차별되어야 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라 하지 않고 ‘유기체’라고 하며,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한다”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잘라내 버려야 하며,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과 차별성을 가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16회 한국 장로교회의 날의 표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롬 12:11)이다. 교회는 모름지기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며 “이것이 말씀을 좇아가는 교회요, 거룩한 교회다. 이런 교회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악하고, 게으른 교회다. 우리 장로교회가 말씀을 앞서지 말며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의 나라에 낙오 없이 들어가는 교회가 다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 “다니엘처럼 뜻 굽히지 않고 기도를”

이어 이성희 목사가 집례하고 한장총 회원교단 총무(사무총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성찬식이 거행됐고, 헌금이 있은 뒤 ‘부흥 기도회’가 열렸다. 기도회에서는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가 부흥 메시지를 전했고, 공동대회장들인 김종주(예장 호헌 총회장)·최원걸(예장 개혁총연 총회장)·송동원(예장 개혁개신 총회장) 목사가 장로교회와 다음세대, 통일을 위한 주제기도를 인도했다. 이후 한장총 직전 대표회장이었던 정서영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축도했다. 부흥 메시지를 전한 손현보 목사는 “모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교회에서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후대에는 이런 모임이 없을 지도 모른다”고 했다. ‘한국 장로교의 날 기념식’에선 김홍석 목사(준비위원장, 예장 고신 총회장)의 사회 아래 대회장인 천 환 한장총 대표회장의 대회사가 있었고,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시상식이 마련됐다. 김진영 기자

오스트리아 남부서 예수 승천과 모세 십계명 묘사된 유물 발견

“성찬기의 고고학적·미술사적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모습이 묘사된 1,500년 전 유물이 오스트리

아 남부에서 발견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대학교(Innsbruck University)의 고고학자들은 이르센 시의 작은 언덕인 부르그비클 정상에 있는 교회를 발굴하던 중 기독교적 내용으로 장식된 1,500년 된 상아 상자가 있는 성지를 발

견했다. 해당 발견은 2022년 8월 처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최근 성명을 통해 “고고학자들이 2016년부터 케른텐 드라바 계곡 일부인 이르센에서 발굴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수석고고학자 제럴드 그래버(Gerald Grabherr)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상아 상자를 약 40개 정도 알고 있으며, 발굴 중 이런 상자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은 약 100년 전이었다.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성찬기는 성당에 보관돼 있거나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고 했다. 유물의 주제 중 하나는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그 위로 하늘에서

손이 솟아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또 이 사람은 팔 사이에 무엇인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버는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의 전형적인 묘사이며, 구약성서에서 (묘사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시작”이라고 했다. 마지막 주제는 두 마리 말이 끄는 전차를 탄 남자와, 구름에서 나온 손이 천국으로 사람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래버는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성취인 그리스도의 승천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약성서 장면과 신약성서 장면의 연결은 고대 후기의 전형이며, 우리의 성찬

기와 잘 맞다. 그러나 비가(biga)라고 불리는 2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탄 그리스도의 승천을 묘사한 것은 매우 특별하고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구자들은 기독교 교회 두 곳, 물탱크 하나, 정착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개인 소지품을 발견했다. 이후 대리석 상자에서 발견된 상아, 금속 구성품, 나무의 원산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그래버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개척자들은 계곡을 버리고 방어하기 쉬운 언덕 위에 거주하게 됐다”며 “성찬기의 고고학적·미술사적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대리석 상에서 발견된 상아 성찬기의 개별 조각들이 파노라마로 배치돼 있다. ©인스브루크대학교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또 쉽게 꿈꾸며 살았다는 건, 그 노동하고 찬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러 기독교 지도자 “서구 기독교 세계 전체에 공격받아”



러시아의 공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정교회 건물. ©우크라이나 SSSCIP 트위터 캡처

최근 러시아의 북음주의 지도자가 “(러시아가) 서구 기독교 세계 전체의 국가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럽북음연맹(EEA)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동서양의 북음주의자들 간의 분열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해 언급했다.

러시아북음연맹(REA) 총무이자 모스크바 침례교 목사인 비탈리 블라센코(Vitaly Vlasenko)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2월 전면전으로 번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무력감과 절망을 고백했다.

블라센코 총무는 “이런 상황에서 천국의 신실한 시민이자 이 땅의 나라의 애국자로 남기는 매우 어렵다. 전쟁터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보면서도 제정신을 유지할 힘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며 “모든 것이 모호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쟁 해결을 바라면서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와 협상을 요구하는 대신, ‘전쟁에서 당신의 나라(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패할 것이다’는 말을 들을 때는 매우 힘들다”면서 “이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온전한 사람들이 이 세계에는 정말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극심한 정치적 대립의 시기 동안에도 “러시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영적

으로 보살피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그는 1054년 가톨릭과 개신교의 ‘서방교회’와 그리스 및 러시아 지역의 ‘동방교회’ 간 동서 분열이 지금도 지속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블라센코는 또 “북음주의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연합전선을 가질 수 없고, 정치적 장벽의 반대편에 서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반면 EEA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블라센코 목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선결 조건을 분명히 했다. 성명서는 “우리는 북음주의자들 간의 동서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러시아가 ‘서방 기독교 전체의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떤 나라도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EA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블라센코 및 러시아 북음주의자들의 고뇌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35개 유럽 국가의 북음주의의 연맹을 대표하는 EEA는 또한 세계 기독교 공동체가 전쟁 종식을 위해 힘써 달라는 블라센코의 호소에 주목했다. EEA는 ‘그의 요청에 대한 응답’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평화를 위한 길은 간단하다”며 “러시아는 2014년에 침공한, 그리고 2022년에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나이지리아 기독교 지도자들, 30명 이상 사망한 자폭 테러에 충격



울고 있는 나이지리아 여성의 모습(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한국오피도어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6월 29일(이하 현지시각) 보르노주 그워자(Gwoza)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에 대해 깊은 충격과 당혹감을 표했다. 이번 테러로 인한 사망자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무슬림들도 있다.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CAN) 다니엘 오코 대주교는 최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나이지리아인의 삶과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이 무의미한 폭력 행위는 테러리즘이 나타내는 사악함과 이를 물리치기 위한 집단적 행동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일깨워 준다”고 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해당 공격은 무슬림 커플의 결혼식에서 발생한 한 여성의 자살 폭탄 테러에서 시작됐다. 나이지리아 카시 셰팀(Kashim Shetim) 부통령에 따르면, 다른 장소에서 최소 두 건의 자살 폭탄 테러가 이어져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발생한 일어난 두 차례의 폭탄 테러는 카메룬 국경 근처 그워자의 장례식장과 병원에서 발생했다. 해당 테러의 배후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보코하람과 이슬람국가서아프리카지부(ISWAP)가 의심을 받고 있다. 무슬림 희생자들은 신속히 마을의 묘지로 옮겨져 매장됐고, 그곳에서 두 번째 여성 자살 폭탄 테러범이 공격을 가했다. 기독교인들은 첫 번째 테러의 희생자들을 다음 날인 주일 매장했다. 급진주의 이슬람 단체인 보코하람과 ISWAP는 자신들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 무슬림을 ‘이교도’로 몰아 기독교인들과 함께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 보코하람은 보르노주를 중심으로 나이지리아 전역에 샤리아법을 적용하기 위해 15년간 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이로 인해 200만 명이 이상이 이주하고 4만 명이 사망했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내세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3부예배(자세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1세대)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밤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새움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CMC 중보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C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와 최우의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경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동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일모임 오전 10: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 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714)853-4030(담임목사)

주일 오전 10:00 허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בלריש(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화)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골 8: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nc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교회: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삼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아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생명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명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품있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야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일선교부서)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희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미 오클라호마주 교육감 “초중고 수업에 성경 포함” 지시



미국 오클라호마주 교육감인 라이언 월터스. © 라이언 월터스 교육감 페이스북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최고 교육 책임자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공립학교에서 5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수업에 성경 교육을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미국 baptist프레스(BP)에 따르면, 라이언 월터스 오클라호마주 교육감은 주 전역의 학군에 보낸 지침은 의무적이며 “즉각 엄격히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월터스는 성명에서 “성경은 없어서는 안 될 역사적, 문화적 기준이다”며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오클라호마 학생들이 미국의 기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오클라호마 교육 기준이 성경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교육감인 라이언 월터스. © 라이언 월터스 교육감 페이스북

월터스는 성명에서 “성경은 없어서는 안 될 역사적, 문화적 기준이다”며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오클라호마 학생들이 미국의 기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오클라호마 교육 기준이 성경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젠트너 드러먼드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 대변인은 주 법이 “이미 성경을 교실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수업에 성경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공립학교 교사인 월터스는 2022년에 오클라호마주 교육감에 선출되었다. 당시 그는 공약으로 우오크 이념에 맞서며, 학교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금지하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급진적인 좌파 이념을 몰아내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다. 교육감이 각 학교의 성경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주법에 따르면, 개별 학군은 교육, 교육과정, 독서 목록, 교육 자료 및 교과서를 결정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의 오클라호마 지부장인 아담 솔타니 지부장은 성명에서 “오클라호마의 공립학교나 전국의 다른 곳에서 종교를 강제로 가르치거나, 수업 계획의 일부로 요구하는 어떤 요구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교분리연합(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U) 회장 겸 CEO인 레이첼 레이저도 최근 성명을 통해 “공립학교는 주일학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번 주 초,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은 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종교 기반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장려하고, 급진 좌파인 ‘우오크’(woke) 이념을 몰아내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루이지애나 주지사인 공화당의 제프 랜드리지는 지난달 19일 공립학교 교실에 심계명 계시를 의무화하는 하원법안 71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까지 각 공립학교 교실에 포스터 크기의 심계명 사본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교실에 메이플라워 협약, 독립선언문, 노스웨스트 조례 등 역사적 문서를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다른 주들도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장려하는 반면, 인종,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홍보하는 교재나 수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美 법원, 민권법에 ‘제3의 성’ 차단 “성은 남녀 둘뿐”

미국 캔자스주 연방 지방법원이 성차별의 정의에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려는 ‘타이틀 나인’(Title IX) 규정 변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타이틀 나인은 1972년에 제정된 연방 민권법으로, 연방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생 모집, 직원 채용 등의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존 브롬스 지방법원 판사는 2일 사우스이스턴법률재단(Southeastern Legal Foundation)과 마운틴스테이트법률재단(Mountain States Legal Foundation)이 맘스포리버티(Moms for Liberty)와 영아메리카재단(Young America’s Foundation)을 대표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발표했다. 이 판결은 알래스카, 캔자스, 유타, 와이오밍, 그리고 오클라호마주 스틸워터에 있는 중학교에 적용된다.

은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아닌,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타이틀 나인이 한 성별에 대해 다른 성별보다 우대하는 차별을 금지하지만, 한 성이 다른 성보다 열등하게 대우받지 않는 한 ‘성별 구분’(sex separation) 또는 ‘성별 특화 혜택’(sex-specific benefits)의 형태로 차별 대우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은 “최종 규칙은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동료들과 함께 샤워하고 옷을 입고 화장실을 사용하려는 욕구에 생물학적 여성의 두려움, 우려 및 사생활의 이익을 포함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한다”며 “더욱이 성차별을 자칭적이고, 잠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 정체성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이틀 나인의 성 구분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브롬스 판사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타이틀 나인 규정 변경을 차단한 예로는 캔터키주의 대니 C. 리브스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브스 판사는 지난달 별도의 판결에서 캔터키, 인디애나, 오하이오, 테네시, 버지니아 및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타이틀 나인 규정 변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브롬스 판사는 타이틀 나인에서 성(sex)의 정의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만 존재하는 전통적인 생물학적 성 개념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초 미국 교육부는 8월에 발효될 예정인 새로운 타이틀 나인 규정을 발표했다. 여러 주는 이 규정이 성의 정의를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까지 확대하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주들은 “새로운 규정이 여성을 스포츠에서 동등한 기회를 잃게 하고, 욕실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롬스 판사는 1972년에 제정된 타이틀 나인의 ‘입법 역사’가 성

에 앞서 트럼프가 임명한 루이지애나 주의 테리 A. 도티 연방 지방법원 판사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주에서 규칙 시행을 중단한 바 있다.

이미경 기자

美 개혁교회, 칼빈대에 “동성애 관련 불일치 조사” 지시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 있는 칼빈대학교의 예배당. ©위키피디아

미국 북미기독교개혁교회(CRC)는 칼빈대학교(Calvin University)에 “동성애와 동성결혼 문제에 대한 교수와 직원 간 의견 불일치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달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열린 CRC 2024 총회에서 교단 지도부는 칼빈대학교 이사회에 “그레이버맨”이라 불리는 ‘고백적 어려움’에 대한 총회의 결정과 관련해 교수와 직원 간 불일치에 대해 정의하라”고 했다. ‘그레이버맨’은 교회의 교인과 임원들이 교단의 가르침 중 성경에 어긋난다고 믿는 특정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 성명서를 의미한다.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동성결혼을 거부하는 CRC의 공식 입장에 대해, 칼빈대 교수진이 최근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총회 측은 또 칼빈대 이사회에 CRC 교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교단 내 인사들과 “일치하는 언어와 절차”를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영어학을 가르치는 데브라 리엔스트라(Debra Rienstra) 교수 등 일부 칼빈대 교수진은 “교단이 CRC 내부의 건전한 반대 의견을 탄압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리엔스트라 교수는 릴리저스뉴스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CRC는 제 인생에 많은 축복과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일은 CRC의 새

로운 버전이다. 이번처럼 원칙적인 반대 의견을 완전히 봉쇄한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CRC는 지난 2022년 6월 연례 총회에서 성 윤리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고백적 지위’로 규정하기로 하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효과적으로 공고히 했다. 이는 칼빈대처럼 교단 산하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들에게 교회의 징계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몇 달 후 칼빈대 지도부는 교수진이 교단의 전통적 결혼 및 기타 인간의 성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투표했다.

대학 대변인은 당시 CP에 성명을 내고 “반대 의사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진은 여전히 교회 입장을 존중하는 교육과 개인 행동에 대한 대학의 기대를 고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2022년 “칼빈대학교 공동체는 북미기독교개혁교회의 고백적 기준을 긍정하고 지지하며 특정 교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교수들의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150년 역사를 통해 잘 섬겨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는 이 결정이 대학과 CRC와 언약적 파트너십을 존중하고, 신앙과 백적 헌신과 일치하며, 기존 정책 및 절차에 부합하고, 학문의 자유를 지지하며, 건설적인 참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특징지었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美 여자 400m 허들 세계新 매클로플린 “하나님 찬양”



시드니 매클로플린 르브론 선수. ©유튜브 영상 캡처

2024 파리 올림픽 미국 육상 대표 선발전 여자 400m 허들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시드니 매클로플린 르브론(Sydney McLaughlin-Levrone·24)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다”며 신앙을 고백했다.

시드니 매클로플린 르브론은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올림픽 육상 대표 선발전을 마친 후 NBC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신 기록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클로플린은 첫 허들을 넘을 때부터 선두로 나섰으며, 마지막 10번째 허들을 넘을 때는 경쟁자도 없었다. 그리고 50초 68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는 자신이 종전에 세운 세계 기록 51초 41을 0.73초 앞당긴 것으로, 여자 400m 허들에

서 51초의 벽을 넘는 최초의 선수가 됐다. 매클로플린이 자신의 신앙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유진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400m 허들에서 자신의 세계 기록을 경신한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20)는 말씀을 올렸다.

이번 대회 우승 후에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한다. 어제는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다.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믿음과 신념에 집중했다. 기도의 양과 노력은 50초 68로 하나님 은혜의 최고에 달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목표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포츠의 경계를 계속 넓혀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강혜진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안 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침례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가디노비자)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고태형 담임목사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 평일(월-금) 06:00AM
-2부 09:15AM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정수영 담임목사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EM 오후 12: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사랑부 오전 11: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종교개혁(가미비) 오전 11:00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만용)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초등부 오전 11:00 Youth 금요일(월) 오후 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개혁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종교개혁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8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종교개혁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만용)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팔미제물 OC제물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9:00(만용) 오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11:30(만용) 토 오전 8:00(200M)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금요일(만용)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59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7. (818)363-5887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견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

주일예배 오전 10:40 지동근 담임목사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6: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베이커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정공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교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이병걸 담임목사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박은호 담임목사
화요일중보기도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수승
·아시아미용기술훈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찜닭, 오방면,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함유 \$8.80
D3 5000 IU 선사하는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함유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갈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른다면 젊어집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CMF 선교회 7월 정기예배. ©CMF 선교회 제공

CMF 정기예배, 참된 사랑 되새겨

CMF 선교회 7월 정기예배가 지난 6일(토) 오후 5시 CMF 회관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김철민 장로(CMF 선교회 대표)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고 찬양에 이어 양병식 목사가 대표기도하고, 엄영민 목사(현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총장)가 설교했다.

엄영민 목사는 오현승 간사(대학 교수)의 특별 순서에 이어 '참된 사랑'(예레미야 9장23절-24절)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니, 선

교사들의 고민과 갈등은 일반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사역하고 있는가? 과연 나를 통하여 맺는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들인가?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민을 하게 해주신다"고 말했다.

엄 목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심판하셨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랑과 교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 혼자 힘으로 더 잘 할 수 있다는 교만을 갖고 있었다. 하

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열조들이 섬기던 우상을 쫓은 것'에 대하여 지적하셨다. 교만과 자랑은 어느 곳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든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경미(노르웨이선교사) *Jeff KIM (영국 선교사) *탁원준 선교사(페루) *방호도 선교사(페루)가 각각 5분씩 간증을 하고, 채형병 목사(CMF)의 인도로 합심 기도를 하고, 조봉기 선교사(캄보디아)의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됐다.

김민선 기자

평강교회 "한 여름 밤도 주님을 찬양해"

평강교회가 LA와 사우스파시데나 주민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고자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13일(토) 오후 5시 "한 여름 밤도 주님을 찬양해"를 주제로 제2회 평강 블레싱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

이번 콘서트는 한 여름밤의 더위를 식혀줄 아름답고 감동적인 음악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찬양 사역자 정종원 목사, 이은수 목사, 안용대 목사를 비롯해, 소프라노 김현주와 이영희, 베이스 김성현이 무대를 선다. 피아노 트리오 나경희, 바이올리니스트 황여주, 첼

리스트 장성희가 함께 연주하며, Joy 여성합창단(단장 김보강, 지휘 이영희, 반주 나경희)이 특별한 하모니를 선사한다.

교회 측은 "이번 행사는 팬데믹으로 지친 마음과 몸을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콘서트가 후에는 피로연이 열리며, 모든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간단한 식사가 제공된다.

김민선 기자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제2회 평강교회 블레싱 콘서트

한여름밤도 주님을 찬양해

일시 | 2024. 07. 13(토) 오후 5시
사우스파시데나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2024 세계선교교회 장학생 선발

세계선교교회(김창섭 목사)가 2024년 장학생을 선발한다. 교회는 매년 가을 바자회로 기금을 모금하여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이번 장학생 선발에는 남가주 거주자 및 남가주 소재의 정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또는 입학 예정인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분야는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성적 우수자, 신학생, 목회자(전도

사) 자녀 및 선교사)이다. 교회 홈페이지(wmcla.com)의 교회소식란을 통하여 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7월 28일이며 장학금 수여식은 8월 11일 오전 11시, 세계선교교회에서 열린다. 선발된 학생은 반드시 수여식에 참석해야 한다.

자격은 2년 또는 4년제 공인 교육기관의 풀타임 학생으로 남부 CA 거주자 또는 남부 CA에서 학

교에 다니고 있어야 하며, 최소 GPA 3.0 이상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여야 한다.

지원서 및 에세이, 향후 수업 일정, 최근 성적을 포함한 공식 성적 증명서를 마감일이 7월 28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의: 윤주리 목사 (323-788-8757 or pjncsyoan@yahoo.com)

김민선 기자

새생명비전 15주년 선교대회 및 남가주 행사

창립 15주년을 맞은 새생명 비전교회(강준민 목사)가 7월 12일(금)부터 7월 14일(주일)까지 선교대회를 연다. 7월 12일(금) 저녁 7시 30분에는 금요일집회, 13일(토)에는 선교 세미나 및 집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14일(주일) 1부-4부 예배는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린다.

동양선교교회(김지훈 목사)가 창립 54주년을 맞아 7월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김동호 목사(전 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를 초청해 부흥사경회를 진행한다.

부흥회 일정
7/12(금) 오후 7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7/13(토) 오전 6시 "뷰티풀 랜딩"
7/13(토) 오후 6시 "그리스도의 편지"
7/14(주일) 1,2,3부 연합예배 "하나님만 섬기라"

시니어를 위한 구영순 독창회가 7월 20일(토)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에서 개최된다. 테너 오휘영, 반주 구소라가 함께 하며, 누구나 와서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이번 독창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센터메디컬그룹은 푸짐한 선물을 제공한다.

문의: (213) 595-4700

가든그로브에서 센터메디컬 그룹이 주최하는 마당잔치가 7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센터메디컬클리닉 주차장에서 열린다. 예서는 게임부스와 다양한 체험, 의료진의 무료 진료와 무료 식사, 무료 미용, 쏟아지는 경품들이 제공된다. 문의: (714) 583-8569

행사 일시: 7월18일(목) 10am-1pm
주소: 12372 Garden Grove Bl Unit B Garden Grove

러빙워십이 주최하는 비와이 단독 콘서트 'Movement IX(무브먼트의 투스)'가 8월 17일 저녁 7시 LA 다운타운 노보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비와이 콘서트는 지난 해 제이어스와 연합공연, '예수야(Yeshua)'에 담았던 비전의 연장선에서 열린다. 크리스천 청년들을 복음으로 일으키는 것이 '예수야' 공연의 비전이었다면, 이번 공연에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비전을 담았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비와이는 빠르고 자유로우면서도 가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스타일의 랩을 구사하며 크리스천 뿐 아니라 비크리스천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랩퍼이다.

2016년 엠넷에서 열리는 힙합 오디션 '쇼미더머니5'에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주디 한 기자

2024

ONE-POINT DRAMATIC SERMON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 세미나

“청중을 사로잡는 강해설교 작성법, 이틀간의 세미나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7월 29(월)~30일(화)

- **시간** : 오전 9:30~오후 4:50
- **장소** :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 **등록방법** : QR코드 스캔 후 등록해 주세요
- **문의** : 213-434-1170

- **대상** : 신학생, 목회자, 선교사 등
- **특전** : 강의안 및 점심 식사 제공

선착순 50명!

온라인 신청



● 강사소개

- 계명대 (BA 영문과)
- 총신대 신대원 (M.Div. 목회학)
-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Th.M 구약학 수료)
- Calvin Theological Seminary (Th.M 신학약)
- University of Pretoria (Ph.D 설교학)
- 현아신대 설교학 교수
- 현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회장
- 저서 <설교의 삼중주> 등 다수

신성욱 교수
현 아신대 설교학 교수

세미나 소개

1970년부터 '3대지 설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포인트 설교'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주제로 30분 설교를 작성하기 어려워 여전히 많은 설교자들이 3대지 설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인 신성욱교수는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 프레임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과 구성법, 전달기법 등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들을 배우고, 성경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청중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원포인트 설교작성의 방법들을 통해 새로운 설교의 지평을 열 수 있길 기대하며 남가주 지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을 초청합니다.

공동주최 : 기독교일보, 월드미션대학교

민중기 칼럼

천사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민중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원로
KCMUSA이사장

수십 년 만에 만나서 말 놓고 이름 부르는 관계는 동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름 부르기가 미안해서 정 변호사, 김 사장으로 불렀더니 “그냥 이름 불러”라고 친구가 말합니다. 고교 동창 정 변호사가 마지막 안식년을 어바인 주립대(UC Irvine)에서 열심히 연구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가르치신 성경 목상이 법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뉴포트 비치의 식당에서 시작된 만남이 정 오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야기꽃

을 피우다가 저녁이 되어 어바인대 빌리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지속했습니다. 밤 9시 반 헤어질 때까지 종일 즐거운 추억을 만끽했습니다. 고교 선생님 이야기와 별명, 교내 활동, 친구들의 사회적 성취와 공헌, 전문성 개발, 각자의 군대 직장 가정, 그리고 신앙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종명 친구는 저녁을 주문해서 시켜 놓고 내게 “천사는 남자냐, 여자냐” 물었습니다. 저는 천사는 구약성경에서 “말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남성형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사용하는 “안젤로스”도 남성형입니다. 친구는 옛 경험을 꺼내면서, 자신이 만난 천사 같은 존재가 남자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식사가 좀 정리되면서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90년대 어느 겨울, 친구가 강원도에서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 방관길을 운전하는 중에 브레이크가 듣지 않고 차가 미끄러져 길 밖 경사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뒤집힌 상황에서 벨트를 풀고 나오려는데, 손과 발로 창문을 열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

히 차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그 장소에 두 사람이 홀연히 다가와 큰 돌맹이로 창문을 깨뜨리고 자신을 구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근 병원으로 인도하여 친구를 입원시켰습니다. 친구는 너무도 고마워 ‘연락처를 남기시면 후사하겠다’ 하였으나, 그들은 “어려운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면 됩니까”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들의 얼굴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과 천사들의 영적 세계로 나눕니다. 천사의 영계(spiritual realm)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며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가 하면,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려는 악령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삼손의 부모님의 경우, 베드로의 경우 등 성경에는 너무 많은 천사 체험이 있습니다.

다만 천사에 대한 몇 가지 다음의 역측은 거부해야 합니다. 첫째 아기 천사와 여성 천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은 예술적 상상력에 의한 천사의 그림이 많습니다. 둘째로 모든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천사 가운데서 성경이 날개를 가졌다고 말하는 경우는 “그림”(Cherubim)과 “스랍”(Seraphim)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사탄이나 루시퍼(계명성)는 보통명사로 사용하던 단어가기 때문에, 이 단어가 성경에서 항상 타락한 천사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넷째, 천사를 개인의 보호자로만 규정하면 아니 됩니다. 천사들 가운데에서는 교회, 국가와 민족 공동체를 관장하는 고위급 천사가 있습니다. 다섯째, 위상으로 볼 때 천사가 인간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친구를 만나 회포를 푸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멀어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성결하게 가꾼 마음과 과정의 아름다운 추억과 선행, 신앙의 박물관을 서로 돌아보며 행복했습니다.

강준민 칼럼

말씀의 도서관을 만드십시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도서관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도서관과 같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읽은 책들이 담겨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도서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도서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악한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창고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두면 필요할 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릇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마음의 그릇에 말씀을 담아두면 마음은 가장 복된 그릇이 됩니다.

성경 암송은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교육 현장(쉐마)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신 6:6). 연필로 쓴 것은 지우개로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필로 새긴 것은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새겨 둡니다.

성경 암송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란 분별력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다(요 1:14).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버립니다. 사울 왕은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다(삼상 15:23, 26). 다윗 왕은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삼하 7:9, 개역한글).

성경 암송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무늬를 결정하고, 색깔

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머물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기본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뿌리 깊은 영성》 책을 쓴 후에 받은 질문은 “깊이 있는 영성”이란 어떤 영성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씩씩하는 중에 예수님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뿌리 깊은 영성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성경 암송에 탁월하셨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영성은 성경 암송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드리시는 중에 마귀의 유혹을 세 번 받으셨습니다. 세 번 모두 암송하고 계셨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마 4:4, 7, 10).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경을 암송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경 암송에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은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가 기본을 다집니다. 또한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기본은 근본입니다. 근본은 본질입니다. 기본을 무시하고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암송한 말씀을 꺼내어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머리에 머물던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다.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히 4:12). 말씀은 하나님이 뿌려 주시는 씨앗입니다. 암송한 말씀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엡 6:17).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는 비결이 있고, 비법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코치가 있습니다. 혼자 수업을 하는 것과 탁월한 코치를 만나 수업을 배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잘 기억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전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공을 쌓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적 학습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암송한 말씀을 기도와 묵상과 영적 전쟁과 전도에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 더욱 지혜롭고, 더욱 성숙해 지시길 소원합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새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문의 1-877-580-2424 **사무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연령, 안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01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02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40~50대: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간'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께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을 추천합니다.



03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 **\$15.90**

20~30대 직장인: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01
간 건강 간건강 가득 밀크씨슬
\$14.90 ▶ **\$11.90**



02
간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03
간 건강 CMG 간N 밀크씨슬
\$27.90 ▶ **\$23.90**



04
간 건강 간에는 밀크씨슬
\$21.90 ▶ **\$18.90**



05
위 건강 위건강
\$18.90 ▶ **\$15.90**



06
신경을 위한 건강제 신경엔 마그네슘
\$19.90 ▶ **\$16.90**



07
항산화엔 비타민 D
비타민D 4000IU
\$13.90 ▶ **\$11.90**



08
항산화엔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D 가득
\$15.90 ▶ **\$12.90**



09
항산화엔 비타민 D
CMG 항산화N 비타민 D
\$18.90 ▶ **\$15.90**



10
피부 보습 수분가득 히알루론산
\$19.90 ▶ **\$15.90**



11
관절 건강 CMG 프리미엄 보스웰리아
\$17.90 ▶ **\$14.90**



12
홍삼 10ml x30
한국 홍삼 퓨어 데일리 스틱
\$100.00 ▶ **\$89.00**



J1 MART
Healthy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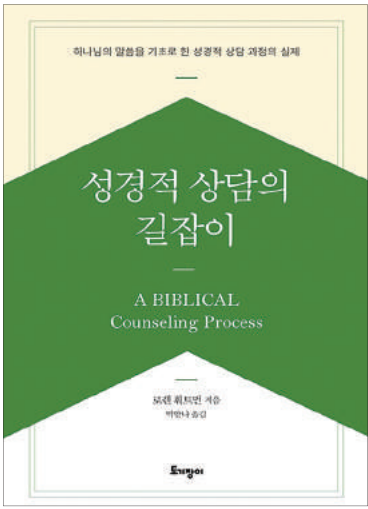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SCAN ME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기독교 상담과 성경적 상담

공감은 문제 해결 방식 아닌... 사랑하는 방식



성경적 상담 길잡이

로렌 휘트먼 | 박안나 역 | 토기장이 | 180쪽 | 12,000원

‘성경적인 상담이란 무엇인가?’ ‘그 과정 안에는 어떤 것이 담겨야 하는가?’ 성경적 상담자 로렌 휘트먼은 이러한 질문을 다루며 성경적 상담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시한다. 상담의 초기부터 종결기까지 진행 과정을 구체적인 상담 사례를 통해 자세히 보여 주고, 상담자가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과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 알려 준다

저자는 성경적 상담자들에게 위로를 건넨다. “상담자여, 당신에게는 상담자가 있다!” 우리에게는 첫 번째 상담자, 탁월한 상담자, 완전한 상담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분은 이 상담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셨다. 이제 용기를 내어 앞서가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에 함께해 보자

기독교 상담과 성경적 상담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둘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심리학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상담은 심리학을 수용하거나 이용한다. ‘통합주의’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성경과 심리학을 통합해 더 풍성한 상담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말이다.

반면 성경적 상담은 심리학을 배척한다. 심리학 분야에서 제공하는 모든 유의미한 통계나 연구 결과를 모조리 다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다. 객관적 자료를 해석하는 심리학의 틀,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계관을 배척한다.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전부라고 보는 관점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며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타고났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보는 관점은 아무리 애써도 통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성경적 상담을 가르치는 주요 학교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과 마스터스 신학대학원, 국내에는 총신대학교 정도가 있다. 주창자로는 제이 아담스를 시작으로 데이비드 폴리슨, 에드 웰치, 히스 램버트, 존 스트리트, 스투어트 스캇, 폴 트립 등이 있다. 핵심 기관으로 CCEF와 ACBC가 있는데, 로렌 휘트먼은 CCEF에서 JBC(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개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경적 상담 상담자이자 교수이다.

〈성경적 상담의 길잡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적 상담 과정의 실제〉는 성경적 상담 과정을 가장 체계적 과정으로 일반 상담 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도록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CCEF 기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저자 로렌 휘트먼은 독자에게 성경적 상담이 어떻게 내담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성경적 상담 과정의 초기, 중기, 종결기로 나눠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보여준다. 이미 국내에 소개된 많은 성경적 상담 관련 번역서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

부한 학자들이 정립한 입문서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성경적 상담이 이루어질 때, 각 회기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스스로 또는 내담자에게 해야 하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며 언제 종료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적 상담의 중요한 컨셉을 이해하고 완전히 공감한 사람들도 실제로 성경적 상담을 실천하려 할 때,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휘트먼은 그런 독자에게 성경적 상담의 실제적 과정을 알려주며 이는 매우 유용하다.

히스 램버트는 〈성경적 상담의 핵심 개념〉이라는 책에서 성경적 상담의 개척자인 제이 아담스에게 부족했던 점이 내담자의 고통에 관한 충분한 공감이라고 했다. 휘트먼은 성경적 상담의 1회기와 2회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말한다. 공감은 상대의 죄를 덮어주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다. 그녀는 공감을 이렇게 정의했다: “공감은 ‘나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당신을 봅니다. 예수님이 당신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도 당신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경험, 그리고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29쪽).”

하지만 공감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 문제를 겪고 있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식이다. 문제 해결은 내담자가 성경을 통해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내담자가 처한 상황을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로 보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 합당한 감정, 올바른 의지를 갖도록 돕는 과정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고 거룩한 길을 제시한다. 그래서 상담가는 성경으로 내담



©Pixabay

자에게 올바른 해석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휘트먼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상담의 초기, 중기, 종결기에 실제로 상담가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야 할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질문을 제공한다. 실제로 성경적 상담의 과정을 겪고 있는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자기가 실천하는 상담이 올바른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적 상담에 관하여 막연하다는 느낌을 가진 독자 역시, 이 책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성경적 상담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적 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운 이들도 한국에 와서 여러 심

리 치료 자격증을 획득하여 전문성을 나타내려 하고, 그 과정 중에서 심리학적 관점을 알게 모르게 수용하거나 상담 과정에 반영할 때가 많다. 많은 경우 어떻게 성경적 상담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일에 오직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오직 성경이 우리가 겪는 모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는다면, 다시금 진짜 성경적 상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일에 휘트먼의 이 책이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 책을 성경적 상담학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명희 권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14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everyone and to be holy;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HEBREWS 12:14.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사역자 청빙

워싱턴주 (WA), 레이스 (Lacey)에 위치한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전임(Full-time)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부서: 행정 및 Youth Group 전임 부목사(Full time)

1. 지원 자격
 - (1) 신실하게 팀 사역하실 목회자, 정규 신학교 졸업자 (M. Div)
 - (2) 이중언어 가능하신 분 (Youth Group 담당 경험이 있으신 분)
 - (3) 교회 교구사역 및 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
 - (4) 미국에서 거주 및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2. 지원 서류
 - (1) 이력서(가족사진), 자기 소개서 및 신앙 간증문
 - (2) 최근 설교 영상 또는 설교 영상 링크
 - (3) 신학교 졸업 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 (4) 추천서 (목사·2인): 목회자 2인 중에서 현재 혹은 이전에 섬긴 교회의 담임목사
3. 서류제출 및 마감

모든 서류를 ocp91@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자: 사역자를 구할 때까지
4. 문의 허재영 목사: T.(253) 282-2322, 저희 교회는 KAPCO에 속한 교회로 홈페이지를(www.kocpc.org)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Olympia Central Presbyterian Church

7241 Pacific Ave. SE, Lacey, WA 98503
Website: www.kocpc.org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인물화의 두 차원

‘종교개혁이 바꾼 미술’ 느낄 수 있는 ‘거장의 시선전’



피테르 브뤼헬, 농민의 결혼 연회, 패널에 유채, 114x164cm, 1568, 비엔나 미술사박물관 소장

**피테르 브뤼헬 <농민의 결혼 연회>
니콜라 푸생의 <바커스의 양육> 비교
건강한 인간 인식, 예술 지평 넓혀
헬레니즘과 기독교 차이도 선명해**

지난 편에 이어, 서성록 교수님의 국립중앙박물관 영국 내셔널 갤러리 ‘거장의 시선전 (2023. 6. 2- 10. 9)’ 감상 후기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 지형을 크게 바꾸어 놓는데 그치지 않고, 문화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화란 규제 없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구조 내에서 인간의 창조력 발휘와 그 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회화 예술에서도 똑같이 목격된다.

과거에는 화가의 작품 활동이 선지자와 사도, 성인 등의 이상화된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반(反)종교개혁을 표방한 트레نت 공의회(Council of Trent)에서는 미술가가 성경의 이야기나 전통적 이야기에 국한된 주제만을 다루도록 규제하였다. 천사들을 그림 경우 반드시 ‘날개’를 달아야 하고, 성인들은 구별된 존재로 ‘후광’을 넣어야 한다는 등의 단서를 붙였다. 이에 따라 그림에서 성과 속의 구별은 더욱 분명해졌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크게 바뀐다. 종교개혁 이후 하나님께서 신분과 외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깨우침을 받게 되자, “화가들의 관심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향하지 않고 모든 계층과 지위의 사람들을 주제로 하여 표현하기 시작했다(아브라함 카이퍼).” 인간을 인간답게 바라보게 된 것은 종교개혁으로 인해 새로운 통찰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보여주는 작품이 플랑드르 화가 피테르 브뤼헬(Pieter Bruegel the elder)의

<농민의 결혼 연회>(The Peasant Wedding Banquet)(1568)이다. 소작농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브뤼헬은 16세기 농민의 결혼 풍습을 재현한 ‘장르 그림(풍속화)’을 제작한다.

연회는 어느 지주의 헛간에서 열리고 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동네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결혼식 축하연에 참석하고 있다. 색 바랜 청록색 포대를 배경으로 신부가 다소곳하게 앉아있고, 화면 전면에는 일꾼들이 경첩을 떼어낸 문에 ‘레이스트파프’라는 향토 음식을 나르고 있다.

이 무렵 플랑드르 농민들이 주로 먹었던 것은 빵과 오토밀, 스프였는데, 여기에 포도주 또는 맥주가 더해져 한층 잔치 분위기를 더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인물이 한 명 있다. 연회에 흥을 북돋는 주요 역할을 맡은 화면 중경의 백파이프를 부는 악사이다. 전통 복장을 한 악사는 악기를 불다 말고 잠깐 탄성을 부리고 있다. 그의 시선은 음식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역시 허기진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 그림에서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연회를 즐기는 중이다. 입에 음식물을 떠 넣는 장면을 그리지 않는 것은 당시 화가들의 불문율과 같았다. 이런 사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화면 속 인물들은 식사를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 이같은 동작은 그림을 실제처럼 보이게 하고 활기차게 만든다. 플랑드르에서는 신랑이라 할지라도 하객들을 위해 음식 운반을 거들어야 했는데, 이 그림에서 신랑은 포도주 또는 맥주를 돌리며 이웃 주민과 친인척, 친구들을 대접하고 있다.

<농민의 결혼 연회>에서 브뤼헬은 신혼부부 축하연을 역동적 구성과 특징적 인물 배치로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 왼쪽을 보면 새로운 손님들이 밀려드는데, 이 연회는 지금

이 한창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맛있는 음식과 유쾌한 음악 속에 잔치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어가는 중이다.

물론 이와 대조적인 화가도 있었다. 대부분의 생애를 로마에서 보낸 프랑스의 니콜라 푸생(Nicholas Poussin)은 르네상스 인물주의 전통을 따르는 고전주의 화가였다. 일상적인 세상 너머에나 있을 법한 신화적 인물들을 주로 그렸는데 (바커스의 양육)(1628년경)도 그런 예에 속한다.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Ovidius Nas)의 『변신 이야기』에는 제우스의 아들 바커스(후일 디오니소스)가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를 이모인 이노에게 맡겨 양육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림에서 바커스는 이노의 남편 아타마스 왕에게 의지해 포도즙을 받아 마시고 있다.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은 이노로 추정되고, 화면 오른쪽 날개 달린 야기 푸토가 한손으로 염소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포도를 가리키는데, 이는 포도를 먹은 염소를 제물로 바치던 관례를 상징한다.

이 그림은 브뤼헬의 <농민의 결혼 연회>와 비교된다. 등장인물부터 작품 내용까지 차이점이 뚜렷하다. 브뤼헬이 천한 신분의 군상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푸생은 범접할 수조차 없는 신들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자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면, 후자는 신화의 세계에 중점을 두었다.

앞의 작품이 어릴 적부터 보아오던 동네 젊은이들의 혼인을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평민들의 일상을 그렸다면, 후자는 이노가 바커스를 사랑하는 것을 시기하여 나중에 헤라의 대리인을 시켜 이노와 아타마스

를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리는 비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라이너와 로즈 마리아겐에 따르면 “브뤼헬 이전의 어떤 화가도 감히 그러한 작품을 제작할 엄두조차 갖지 못했다. 동시대 미술은 일반적으로 농민을 어리석고 게걸스럽고 술에 취하고 폭력에 취약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롱의 대상으로 여겼다.”

과거의 눈으로 보면 이 작품은 심중팔구 졸작으로 평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브뤼헬은 그런 통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브뤼헬은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따라, 농부들의 삶을 참다운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예술적인 방식으로 실현해냈다. 푸생의 작품에는 인간이 꿈꾸었던 그럴듯한 가상적인 세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체계적이고 정연하게 수립된 헬레니즘 사상과 우주관이 스며들어 있으나, 브뤼헬의 작품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브뤼헬은 우리가 눈을 뜨기만 하면 느낄 수 있는 실재의 충만함, 세상의 역동성에 시선을 맞추었다.

물론 브뤼헬도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검은 구름이 한 점 없는 완전한 곳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세상 역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영역임을 깨닫고, 세상과 그곳에 거주하는 이웃을 무척 사랑하였던 것 같다.

브뤼헬이 평범한 농부를 주제로 삼은 것은 종교개혁의 시대적 배경 안에서 가능했으며, 그가 농부들의 삶과 일상에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인식 없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인간을 바라보는 건강한 인식이 예술의 지평을 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니콜라 푸생, 바커스의 양육, 캔버스에 유채, 80.9x97.7cm, 1628년경, 내셔널갤러리 소장

Multi-Function Printers

KONICA MINOLTA bizhub

2024 SPECIAL PROMOTION 개척교회를 위한 스페셜 프로모션

개척교회의 칼라복사기 비용을 40~60% 절약할 수 있는 기회!

2024년 개척교회를 위한 칼라복사기 스페셜 프로모션이 완성되었습니다. 10년미만된 개척교회를 위한 프로모션입니다. 기존교회들은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복사기의 옵션, 모델, 사용량, 렌탈 기간에 따라서 Special discounted price가 결정되며 교회들의 렌탈가격은 모두가 다릅니다.

텍스트로 본인의 성함과 교회명을 남겨주세요. 전화드리고 간단 명료한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213 705 7778(KOR)
TEL: 213 999 7995(ENG)
213 663 8970(ENG)
greenmwild@gmail.com

GREEN M.WILD IMAGESYSTEMS

본사는 기독교일보 공식 후원업체입니다

오렌지한인교회 제 9대 정유성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오랜 교회의 역사, '어제의 축복' 안고 새 담임목사와 함께 '내일의 사명' 향해

오렌지한인교회 제 9대 정유성 담임목사가 취임했다. 지난 주일(7일), 별도의 예배 없이 주일 2부와 3부 연합예배 중 취임감사예배를 가진 교회는 축하 영상 메시지, 특별찬양, 꽃다발 증정, 축사 및 답사로 기쁨과 감사를 나눴다.

정유성 목사는 2002년부터 남가주사랑의교회와 알바인 베델교회에서 사역했으며, 프뉴마워십을 창립해 이끌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는덴버한인복부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한 이후 2024년 6월부터 오렌지한인교회 제 9대 담임목사로 사역을 감당해 왔다.

당회서기인 김두환 시무장로는 축사를 통해 “돌이켜 보면 지난해 11월 19일, 전임 담임목사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올해 6월 19일, 정유성 목사님이 부임하시기까지 기간은 결코 쉽지 않은 기간이었다. 또한 이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풀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간이었다. 모든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했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정유성 목사님을 제 9대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셨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난 날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묻어두고 주님의 인도 가운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 교회의 앞날을 위해, 특별히 2세 3세 차세대들 위해 합심해 전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고자 한다. 정유성 목사님을 뜨겁게 환영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환영했다.

정유성 목사는 마지막 답사에서 “부임한 지 한달이 지나고 두 달째,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은 평안이 있고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다.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할 때 마음의 진심이 전달되서 행복한 교회다. 앞으로 더 행복한 교회, 감사와 웃음이 그치지 않는 교회, 숫자적인 증가에 그치지 않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일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도님



오렌지한인교회 제 9대 정유성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오렌지한인교회

들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다”고 감격과 감사를 전했다.

앞서 감사예배 순서에는 정유성 목사와 특별한 인연을 가진 다섯 명의 목회자들이 진심을 담은 축하메시지와 교회의 가장 젊은 그룹인 5구역 성도들이 정유성 목사가 작사, 작곡한 ‘큰 꿈은 없습니다’라는 찬양으로 은혜를 더했다.

정성욱 교수(덴버신학교)은 “지난 7-8년간 동역 하면서 인격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주의 몸 된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는 정유성 목사님께서 남가주에서 오래된 역사적인 교회인 오렌지한인교회에 부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훌륭한 목사님과 훌륭한 교회가 연합해 한 몸을 이루고 오늘 이 시점부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성령충만함으로 복된 사역을 잘 감당해 가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본 교회 출신인 이재학 목사(디모데성경연구원 대표)는 이민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온 정유성 목사가 오렌지한인교회에 부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하며 “정 목사님과 성도들이 동일한 비전을 갖고 교회를 건 강하게 세움으로 더욱 든든해지고, 선한 영

향력을 끼치는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성장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길 기대하며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김한요 목사(알바인베델교회 담임)는 ‘하나님의 은혜로 푹푹 뭉쳐 있는 목사’라고 정유성 목사를 표현한 뒤, 함께 베델교회에서 사역할 때 작곡한 곡이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이라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바로 오렌지한인교회 역사 속에 어제의 축복이 목사님과 더불어 내일의 사명으로 나아가길 소망한다. 이 시대 필요한 거룩한 부흥을 일으

키는 일에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마 음껏 사용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교제하며 지내온 송병일 목사(덴버한인기독교교회 담임)는 새로운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가 앞으로 더 뜨겁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축복했다.

마지막으로 김경섭 목사(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담임)는 “오렌지한인교회는 지난 50년 가까이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행복한 공동체이다. 이런 귀한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가장 적합한 정유성 목사님을 담임목사로 세워주셨다. 교회는 신령한 샘터이자 진정한 안식처이고 천국의 모형이다. 지난 20년간 믿음의 동역자로 지내온 정유성 목사님은 인품과 영성,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세워 나갈 뿐 아니라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에 늘 감동과 도전을 받는다. 맡겨 주신 사역의 무대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말씀을 향한 영성, 주님의 겸손을 겸비한 목사님이기에 잘 감당해 가길 것을 믿는다. 새로운 목사님과 온 성도들을 통해 오렌지한인교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도한다”고 축하했다.

김민선 기자



Hills
BEAUTY CLUB

- Tue ~ Sun: 9:00 am ~ 7:00 pm
- Monday : Closed

323-465-7400
21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넘김치는 사랑 감사입니다

언제나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오래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소중한 나의 부모님의 건강은 크고 튼튼한
서울 메디칼 그룹의 믿을 수 있는 최고의 한인 의료진들이
30년 이상의 노하우로 정성껏 돌봐드립니다.

Seoul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